

‘흙을 빚으며 흙과 함께 살리라.’
40년 이상 흙과 더불어 질박(質朴)한 우리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찾아온 도예가 이종수(88)씨의 개인전이 11월 16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다. 백자의 순수함을 담은 ‘잔설의 여운’, 흙과 불의 만남을 조형화한 옹기나 토기류 작품들을 선보이는 ‘마음의 향’ 등 두 가지 주제 아래 40여점의 작품들을 전시한다.



◇ 왼쪽부터 ‘잔설의 여운’ (1996년), 각각 1988년과 2001년에 제작한 ‘마음의 향’.

‘흙·물·불’로 빛은 맛과 멋

이종수 도예전 16일까지 가나아트센터서

‘마음의 향’ 주제로 작품 40여점 전시

당당하면서 중도적 겸손... 볼수록 정감

특히 신작 뿐 아니라 그의 40년 도자 인생 속에서 마치 친 자식처럼 애정을 가지고 곱게 간직해 온 회고 반짝이는 달 항아리에서부터 거칠고 투박한 항아리, 여러 다완(茶碗)과 주병(酒甁) 등 다양한 그릇들을 꺼내놓는다.

흙과 물, 불이 가지는 자연의 성질을 최대한 살려 도기(陶器)의 자연적 생명력을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씨의 도자기들은 은근하면서도 꾸준한 우리 그릇의 맛과 멋을 간직하고 있다.

이런 호평뒤에는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다. 이씨는 흙을 만지는 첫 단계부터 유약을 바르고 장작으로 불을 지펴 도자기를 끌라내는 최후의 순

간까지 철저히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도자에서 배어나오는 아름다움은 구수하며 오래 볼 수록 정이 묻어나는 편안한 느낌을 준다.

또한 전래 토기나 옹기의 형태, 그리고 기를 친 눈바닥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재질감도 엿볼 수 있다. 하지

만 무엇보다도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그의 그릇들을 쪽 둘러보면 뽀뽀도 초라함도 없고 당당하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중도적인 겸손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79년 돌연 이화여대 교수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충남 금산으로 내려간 그는 작업장을 짓고 20여년간

그릇 만들기 삼매경에 빠졌다. 이제 는 바람이나 별만 보아도 불을 때아 할 시기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그는, “도자기 만드는 일은 작가들이 병어리 냉가슴 앓듯 고민하고 혼을 바치는 구도의 역과 같다”고 고충을 털어냈다.

고행의 순간을 거쳐 그의 손에서 빚어진 도자기들을 보고 조각가 최종태씨가 “이종수 그릇의 미학은 충분히 의도했지만 그 의도가 보이지 않는 허수(虛數)의 아름다움이다. 은은한 자연미가 돋보여 안 만든 것 같은 아름다움이 나온다”라는 극찬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02)720-1020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전통문양 이렇게 예뻐줄이야...”

치악문화제 단청문양 체험행사 인기



◇ 사진 왼쪽부터 김성수(학생초등 3년), 김조홍(우산 초등 2년), 이화진(학생초등 3) 등이 단청체험을 하고 있다.

“우리 전통문양이 이렇게 예뻐 줄 몰랐습니다. 헤인 스님과 단청화공 김윤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하나

씩 그려나보다보니 집에서 봤던 화려한 연꽃문양을 직접 만들 수 있어 기쁘고 신기했습니다.”

10월 26일 강원도 원주시 봉천내 주변 공원에서 열린 ‘제 22회 치악문화제’ 행사 현장에서 단청문양 체험 전시회에 참석한 이경선(43·원주시 일산동) 주부는 처음해보는 단청 문양체험에 마냥 좋아했다.

특히 이번 단청 체험은 치악문화제 행사 개최 이후 처음이라서인지 원주지역 주민들이 행사기간동안 5백여명 이상이 다녀갔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헤인 스님(문막 지장정사 주지)은 “단청문화는 꼭 불교문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로서 실생활에도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다”며 “꽃병과 밥주걱, 팔래방망이 등 나무 재료의 생활용품에 응용된 단청을 그리면 효과적”이라고 소개했다. 또 스님은 “이번 행사가 끝나더라도 지장정사 내에 있는 성곡 아카데미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단청 강의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www.danchungnara.com, (033)732-0538

원주=김주일기자



◇ 월북작가 함세덕의 회곡을 각색한 영화 ‘동승’.

영화 ‘동승’, 이란 아태영화제서

최우수작품상·촬영상 수상

영화 ‘동승’(감독 주경중)이 10월 23일 폐막한 제48회 아시아태평양영화제에서 그랑프리에 해당하는 최우수작품상과 촬영상을 수상했다.

영화제에 참석하고 이란에서 29일 귀국한 주경중 감독은 “종교는 다르지만 전세계인의 보편적 정서인 어머니를 소재로 해 좋은 공감을 이끌어 낸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란 쉬라즈에서 열린 이번 영화제에는 ‘동승’과 ‘국화꽃 향기’ 등 한국영화 2편을 포함한 11개국 23편이 출품됐다. 올해 베를린 영화제 아동영화 부문 칸 시네필의 경쟁부문인 칸 주니어스, 파리영화제 경쟁부문, 싱가포르 영화제 비경쟁부문 등에 초청되기도 했다.

한상희 기자

이승엽선수 수상 프로야구 특별공로패

사경전문가 김경호씨, 한달걸려 제작



◇ 사경전문가 김경호씨가 제작한 공로패. 한국야구위원회는 출전 신기록을 세운 이승엽 선수에게 이 패를 전달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0월 23일 한국시리즈 5차전이 열린 서울 잠실구장에서 한 시즌 아시아 최다 출전 신기록(56개)을 달성한 삼성의 이승엽 선수에게 특별공로패를 수여했다.

“영원히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1천원권 보편이 가

능한 문화재급으로 제작된 이 공로패는 금과 은을 정제한 뒤 붓으로 글씨를 쓰고 문양을 새겨넣은 작품. 고려사경(高麗寫經)을 500년만에 재현한 김경호씨(한국사경연구회장)가 이번 공로패를 1개월여에 걸쳐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제작해 화제다.

세번씩 정제한 순금과 순은, 사슴에서 채취한 녹교, 옹동나무, 비단 등 국내 최상의 재료들에 한국전통 사경의 기법으로 만든 지름 28cm의 팔각형 공로패 깃가는 2천만원 정도다. 바탕색은 고대 페르시아 왕의 색이라는 자주빛이다. 또 글씨는 천하의 중심이자 불멸을 상징하는 금, 테두리의 문양은 고귀함과 축복을 의미하는 은과 잡귀를 비롯한 사탄것을 물리치는 경면주사도 함께 사용됐다.

김주일기자



◇ ‘친구’ 자켓앨범

“이번 앨범이 성공해 포교효과를 거둬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수’ 김흥국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80년대 후반 ‘호랑나비’로 대중에게 알려진 이후 가수 분업보다 라디오 DJ, 오락프로그램 고정 패널, 월드컵 응원 등에서 활약했던 김흥국 씨가 오랜만에 새 앨범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은 99년 ‘무정’을 발표한 이후 정규앨범으로는 4년 만이다. 타이틀 곡 ‘친구’는 70년대

4년만에 새앨범 ‘친구’ 발표

불자가수 김흥국씨

고고리들의 곡으로, 복고풍 컨셉이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친구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싶었습니다. 제 노래지만 심금을 울리는 절절한 노래예요. 그동안 트로트에만 치중돼 있던 성

절절한 노래... 포교효과 거뒀으면

인가요에도 신선한 시도가 될 겁니다.”

이번 앨범에는 ‘잊어버리세요’, ‘믿어주요’, ‘꽃바람불면’, ‘황혼의 바닷가’, ‘정아’, ‘바람부는 날엔 종로로 나가자’, ‘초원’ 등 18곡이 실려 있다.

또 그동안 김씨의 트레이드 마크곡이었던 ‘호랑나비’, ‘59년 왕십

리’ 등도 수록돼 있다. 김씨는 이번 앨범에 대해 “지난 28일 있었던 모 방송국 가요쇼 녹화장에서 방청객 주부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대박’을 기대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핸드폰 컬러링을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 개경계’로 해 놓을 만큼 돈독한 신심과 신생활중으로도 잘

알려진 그는 불자가수로서의 마음가짐을 밝히기도 했다.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수 있었던 것은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포교활동, 봉사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한상희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Btv 불교tv <ch 32>
06:05 불교강좌	5월 12:50 불교TV 스페셜, 오가피
08:00 법고와 죽비	6월 09:20 방송에 도가 있다
10:05 BBS 신행상담실 15:00 뉴스 17:10 무명을 밝히고 21:30 BBS 초대석 22:05 영화음악실	7월 08:30 하재봉의 영화신석 8월 09:10 조선불교탄압사-부처 통국하다 9월 13:30 성운대사 불교강좌 10월 09:20 견강하게 살시다
아 이 라 이 트	
■ 불교방송 > 법고와 죽비(11월 9일, 08:00-08:25)=불교계 여론 형성의 창구 역할을 하는 법고와 죽비. 9일 방송에서는 불교계의 한 주간 주요 이슈를 현장기자를 통해 심층 분석하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	
■ 불교텔레비전 > 부처 통국하다(11월 8일, 09:10-10:00)=조선대에 성리학 유생들에 의해 탄압받았던 불교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 이날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개국(태조1년, 1412)태종 12~1425년(세종7년)대의 불교탄압 상소문의 내용을 방송한다.	

도룡뇽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www.cheonsung.com

도룡뇽과 인간이 함께 꿈꾸는 세상
우리 도룡뇽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이 땅에 살아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하고 사라져 가는 많은 생명들의 손을 잡아 주는 작은 실천입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과의 공생 속에서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 왔습니다. 현대의 물질문명은 환경파괴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연에 대한 미덕마저 함께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제 자연의 방문자로 이 땅에 온 우리 모습을 겸허히 돌아보고 인간이 아닌 못 생명들의 눈으로 개발문제를 되짚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도룡뇽 소송은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와의 아름다운 연대 관계를 유지하며 조화로운 지구 가족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담은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도룡뇽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 후원계좌번호 : 부산은행 140-12-013476-7 (예금주 : 손정현)
- 문의전화 : 051)623-9220 051)628-0902
- 가입방법 : www.cheonsung.com에서 도룡뇽의 친구들 가입



고속철도 천성산 관동저지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도룡뇽의 친구들,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